

주부 부업

유아복·분식류 체인점 수입 '짜깁'

새도시 건설·아파트촌 늘어 소규모 자영업종 인기

생활경제



최근 가정주부들의 경제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아복과 분식류 체인점이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도 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인점을 개설하는 데 보증금과 장식비 등을 포함, 3천만원 정도의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업자금' 마련이 버겁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에 유아복과 분식류 체인점은 본사에서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업성패를 가늠하는 물품구입 문제를 신경쓸 필요가 없어 초보자에게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유아복 체인점을 내기 위한 가게의 크기는 체인점 본사별로

상품구입은 첫번째는 현찰로 거래하지만 두번째부터는 보증금 한도내에서 외상거래도 가능하며 대금결제는 본사마다 다르나 대체로 15일 단위로 한다.

초보자의 경우는 상품주문 전에 고객의 성향과 소득수준을 면밀히 분석한 뒤 주문해야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품은 전매출액의 10% 정도만 본사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상품을 선택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상품가격은 본사에서 권장소

본사에서 상품 공급해줘 초보자에 유리

여성개발원·민간단체등서 상점 개설교육 받으면 도움

보증금·장식비등 '창업자금' 3천만원선

작할 수 있는 자영업종으로 등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득증가 추세에 따라 유아복이 고급화하면서 지명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 특정기업의 유아복만을 판매하는 체인점이 짜깁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 국수류나 만두 등 간단하고 값싼 분식류를 파는 체인점도 외식업종의 변장과 함께 고소득 부업업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앞으로 분당 등 신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 부업업종은 더욱

최소면적을 설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8~10평 수준이다.

약 8평 정도 가게를 얻으려면 보증금 8백만~9백만원에 월세 30만~40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다음 체인점 본사와 계약에 들어갈 경우 보증금 명목으로 3백만~8백만원, 평당 1백50만~2백만원 정도의 내부장식비, 5백만~8백만원의 첫상품 구입비가 들어간다.

체인점 개설을 본사에 신청할 경우 본사의 담당사원이 현장을 답사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자가격을 책정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고객들이 깎아주기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부와 할인폭을 얼마로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게의 이미지를 좌우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마진율은 대체로 20~30%선으로 괜찮은 편이다.

현재 유아복을 전문으로 생산해 체인점을 운영하는 회사는 아가방을 비롯, 베비바·유베라·모아방·마모스 등으로 지명도가 높을수록 체인점 허가권을 따내기 어렵다.

이들 회사는 점포주들에게 신

제품이 나올 경우 제품의 특성과 판촉방법 등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도 자문해 주고 있다.

분식 체인점은 대체로 본사에서 가맹금 명목으로 2백만원(부가세 별도), 보증금으로 1백만



출산준비물을 비롯, 아기용품들을 파는 전문업체의 체인점이 가정주부의 부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곽윤섭 기자>

원을 각각 받는다. 내부장식과 비품 및 주방설비는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일괄 시공해주는데 그 비용은 내부장식과 비품에 평당 1백만원, 냉장과 및 주방설비에 약 5백만~6백만원이 든다. 점포크기는 실행수 8~10평 이상돼야 한다.

현재 장터국수, 찜구짬구, 다림방, 다전국수 등 4개 업체가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조건과 운영방식은 별 차이가 없는 편이다.

본사에서는 채소류를 제외한 음식 원자재를 매일 일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메뉴, 가격 등

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본사가 공급하지 않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원자재 공급가격은 음식가격의 50%선에서 책정되는데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률은 약 25~30% 선.

외상이 없는 현금장사이기 때문에 물품대금도 원료 공급 다음날 매일 결제하게 된다.

음식장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방장 문제는 본사에서 소개해주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점포주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주방장이 갑자기 그만뒀을

경우도 본사에서 일당제로 주방장을 파견해주기도 한다.

개인적인 이유로 점포주가 영업을 그만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체인점 운영권을 넘길 수 있으며 본사와의 계약도 그대로 승계 가능하다.

유아복과 분식체인점의 한달 수입은 장소에 따라 1백만~2백만원대로 편차를 보이지만 부업으로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체인점 개설에 앞서 여성개발원이나 YWCA 등이 실시하는 상점개설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면 경영기법 등 기초지식을 배울 수 있다. <장정수 기자>